

남북한 어업 협력 방안

신영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남북한 어업 협력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북한의 해양 생태, 어업 자원 및 어업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진출 업체를 통해 개발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발굴,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약 요인의 제거와 함께 남북한 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어업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북한 수산물의 반입에 있어서는 간접 교역보다는 직접 교역 방식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북한 해역에 입어하든가 남한과 북한이 상대 해역에 상호 입어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어선원의 남한 어선 승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한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옴에 따라 대표적인 3D 업종으로서 어업 부문에 필요 인력을 적기에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넷째, 공동 어업 관리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어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한 쪽의 어업 행위가 상대의 어업 자원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가공업이나 수산 양식업 등 분야에 대해 남한의 대북한 직접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머리말

치

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에 따라 그동안 몇가지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남북한 경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 분야에서도 남북한간 협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인데, 특히 어업

분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없고 북한에서도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로서도 많은 수산물을 수입해야 할 입장에 있어 금후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수산물 반입량이 계속 증가해 왔고, 특히 금년 들어서 3 개사가 남북 협력 사업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후 남북 어업 협력을 확대·심화시키는 데는 많은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북한 어업에 대한 실태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투자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어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북한 어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공식 자료와 함께 몇가지 비공식 자료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남북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 협력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한 어업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의 검토와 함께 금후의 어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어업 실태와 문제점

해양 지리적 특성

북한의 어업 실태를 살펴보기 전에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해양 지리적 특성을 간략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업은 기본적으로 해양 지리적 여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북한 해역은 동서 해역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동해안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해저 경사가 심하고(평균 수심 1,700 m) 해안선이 단조로우며(970 km) 하절기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한 대마난류의 일부가 북부 연안까지 진출하고, 동절기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북한 한류가 강원도 남부 연안까지 영향

을 미친다.

서해안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아 해안선 길이가 2,017 km에 이르고 있고, 해저 지형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평균 수심이 40 m에 불과하며 간만 차이가 6~7 m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하절기에는 쿠로시오의 한 지류인 황해난류의 세력이 강해서 북부 연안에도 수온이 25도 내외가 되며, 동절기에는 표면 수온의 하락으로 對流 현상이 발생하여 뚜렷한 수온약층이 없어지게 된다.

수산 자원의 분포

동해의 북한한류는 흑룡강, 두만강 등 대하천의 하천수 유입에 영향을 받아 영양 염류가 풍부하여 명태, 대구, 청어, 연어 등 한류성 어류의 자원량이 많다. 하절기에는 대마난류가 북상, 하층에 냉수괴가 깔려 수온약층이 불과 수m 아래에 있어 난류성 어류의 서식 밀도는 매우 낮다. 그러나 가을부터 세력이 강해지는 한류계가 난류계를 압도, 연안역의 어군 밀도를 높여 정어리, 꽂치, 오징어 등의 어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서해는 황해난류의 세력이 강하지 않고 동절기에는 상하층 해수의 수온이 모두 내려가 난류성 어종은 제주도 부근까지 남하하여 월동하므로 좋은 어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서해안의 주 어종은 조기이며, 흑산도에서 발해만 부근까지 모두 산란장이 되므로 봄에

는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해역별 조업 실태

북한의 어로 수역은 의외로 폭이 좁은데 우선 동해 최북단에서 러시아와의 경계 지역에 있어서는 국력의 차이로 양질의 어장은 구소련이 차지하고 구소련의 위협적인 조업 태도에 북한국방수비대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어 어획량이 많지 않다. 동해 연근해는 어선 등 어로 장비가 취약하여 주로 조총련계의 일본 어선과 계약 조업하고 있는데, 동절기 명태·오징어·정어리 여기에 활발하게 조업하고 있으나 어선의 마력이 약해 해마다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 강원도 고성 지역은 남한과의 변경 지역이므로 일반 어선의 조업은 불가능하고 군 계통의 수산 회사에서 조업하고 있으나, 월남을 우려해서 하루분의 유류, 식량, 물 등을 지급하므로 역시 활발하게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서해 최북단에서 철산반도에 이르는 해역은 중국 요녕성에 거주하는 어선들의 불법적인 월경 조업이 성행하여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류 사정이 좋지 않아 경비정마저 활동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중국 어선들의 월경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면, 서해안 남포·온천 해역은 많은 북한 어선이 조업하는 곳이고 해주와 백령도 부근은 남한과의 변경 지역으로

해류의 흐름과 입출항의 통제가 심하여 많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많지 않고 수산물의 채취에 주력하고 있다.

어선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으나 1988년 기준 총 3만 600 척 정도로서, 이 가운데 동력선은 2만 3,000여 척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한 무역 업체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400 마력 이상의 어선이 20 척 정도 있고, 해외 투자분 및 조총련이나 일본, 러시아 등과의 합영·합작 회사에서 반입한 어선이 다소 있으나 운영권은 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동력선은 동해안에 600 척, 서해안에 800 척 등 총 1,400 척 정도가 있고 유류 부족, 정비 불량, 부품 공급의 애로, 기관 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은 400 척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유류난으로 인해 기존의 돛단배나 고장난 동력선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어선이 약 300 척 정도 있고, 중국의 동력선이 월경 조업하다가 압수된 어선도 다소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어구어법

어구는 80% 이상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어망은 95% 정도

수입하고 있다. 또한 중국 어선으로부터 압수한 어구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많은 어구를 압수 어선과 교환하여 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 기술의 경우 정식 기술 지도 기관이 없고,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있다.

수산 사업 기지 및 양식장

모 무역 업체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에 수산 사업 기지가 13 개소(신포, 남포, 원산, 청진, 온천, 해주, 신의주, 철산, 나진, 선봉, 정주, 통천, 고성)이고, 일본의 자본 및 기술 지원을 받는 양식장이 동해안에 40 개소, 합영·합작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이 서해안에 5 개소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나진·선봉지역에만 15 개의 수산 사업소가 있고, 전국 어항이 26 개소(나진·선봉 포함)로서 1 개 어항당 1 개소 이상의 수산 사업소

나 양식장이 있다고 할 때, 모 무역 업체가 파악한 숫자가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항

어항은 어업에서 필수적인 시설(생산 기반)로서 현재 동해안에 15 개소, 서해안에 11 개소 등 총 26 개소가 있다. 이밖에 무역항으로서 동해안의 홍남·원산항에서는 수산물 양륙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28 개소가 있는 셈이다. 남한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지정 어항만 하더라도 415 개소에 이르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업 생산

북한의 어업 생산량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일부 자료에 의한 생산량은 <표 2>와 같다. 즉, 1965년만 하더라도 77만 3,000 M/T로서 남한보다 오히려 많았으나,

<표 1> 북한의 항만과 어항

| 구분 | 합계 | 동해안 | 서해안 |
|-------------------|----|-----|-----|
| 무역항 ¹⁾ | 8 | 5 | 3 |
| 지방항 | 5 | 3 | 5 |
| 원양 기지 | 5 | 5 | - |
| 어항(수산 사업소) | 26 | 15 | 11 |

자료: 한국무역협회(1998), 「주요 북한 경제 통계」.

주: 1) 동해안의 홍남·원산항에서는 수산물을 양륙함.

〈표 2〉 연도별 남북한 어업 생산량

(단위: M/T, %)

| 연도 | 남한(A) | 북한(B) | B/A |
|------|-------|-------|-------|
| 1965 | 616 | 773 | 125.5 |
| 1970 | 935 | 931 | 99.6 |
| 1975 | 2,135 | 1,304 | 61.1 |
| 1980 | 2,410 | 1,700 | 70.5 |
| 1985 | 3,103 | 1,781 | 57.4 |
| 1990 | 3,275 | 1,455 | 44.4 |
| 1995 | 3,348 | 1,052 | 31.4 |
| 1996 | 3,244 | 876 | 27.0 |

자료: 통일부, 해양수산부.

1970년을 고비로 역전되기 시작하여 1996년 경우 남한의 27.0%에 불과하다. 이것은 남한에서 그동안 천해 양식업 및 원양 어업이 크게 발달하여 90년대 중반까지 절대 생산량이 계속 증가해온 반면, 북한에서는 1985년을 고비로 절대 생산량 자체가 감소한 데 주 원인이 있다.

수산물 판매

북한의 판매 조직으로서 우선 국내 판매는 국가가 운영하는 수산합동판매회사에서 분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배급품과의 물물 교환도 이루어지지만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일반 무역 회사에 수산물 취급 자격을 주어서 해외 수출을 꾀하고 있는데, 현재 무역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무역 상

사 177 개, 합영 및 합작 회사가 39 개 있으며 수산물은 이 가운데 32 개사와 3 개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들 무역 회사는 국가의 대외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외국의 무역 회사와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무역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운영은 독립채산제이고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이윤의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는, '상업적 기업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출 수산물은 동해안의 경우 주로 원산·청진·홍남항을 통하여 수출되고 서해안의 경우 남포·해주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북한 수산물 수출의 주요 시장은 일본과 중국으로서 1996년 일본에 갯지렁이, 대합 등 61억 1,800만 엔 어치를, 중국에는 냉동 대구와 문어 등 6,449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였다. 반면, 인도에서는 수입만 하였고(174

<표 3> 북한의 수산물 무역 담당 회사

(단위: 개소)

| 구분 | | 합계 | 수산물 취급 |
|------------|-------------|-----|--------|
| 무역상사 | 총회사 | 43 | 10 |
| | 전문 업종 무역 회사 | 62 | 7 |
| | 기타 일반 회사 | 72 | 15 |
| | 계 | 177 | 32 |
| 합영 및 합작 회사 | 합영 회사 | 29 | 1 |
| | 합작 회사 | 10 | 2 |
| | 계 | 39 | 3 |

자료: 한국무역협회(1998), 「주요 북한 경제 지표」.

만 4,000 달러), 러시아와는 수산물 수출입이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수출 50만 5,000 달러, 수입 46만 8,000 달러).

가공·저장 시설

북한의 수산물 가공·저장 시설은 일본의 자본·기술 지원 하에 명란, 성게, 털게, 대게, 전복 등을 가공하고 있고, 기타 자숙 및 건조 공장이 있으나 원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신포, 남포, 원산, 청진, 해주 등지에 약간의 냉동 및 가공 시설이 있으나 어획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고, 특히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선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일본 운반선 및 조종련 계열 회사에서 급속 냉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어업 대외 협력 관련 기관

북한의 어업 부문 대외 협력 관련 기관은 당, 정무원 및 군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아래 수산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행정 기관으로서 대외경제위원회가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외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무원의 각 위원회와 부 및 지방의 행정경제위원회 산하에 독자적으로 무역 회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특이한 것으로 인민군에 약 12 개의 대외 경험 창구가 있고 어로통제권을 군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군대 관련 회사에서 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북한 수산물 반입 실적

| (단위: 천 달러, %) | | | |
|---------------|---------|--------|-----|
| 연도 | 전품목(A) | 수산물(B) | B/A |
| 1989 | 18,665 | 174 | 0.9 |
| 1991 | 105,722 | 3,053 | 2.9 |
| 1993 | 178,166 | 878 | 0.5 |
| 1995 | 222,855 | 2,692 | 1.2 |
| 1997 | 193,069 | 14,572 | 7.5 |

자료: 한국무역협회(1998), 「주요 북한 경제 지표」.

남북한 어업 협력 현황

수산물 반출입

현재 남북한간 어업 협력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북한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단순히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 대부분 제3국을 통한 중개 무역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선, 반입의 경우 〈표 4〉에서 보듯이 1989년도에는 17만 4,000 달러에 불과했으나(전체의 0.9%), 1991년도에는 305만 3,000 달러로 급증하였고, 1993

년에는 다시 87만 8,000 달러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 다시 269만 2,000 달러로 증가하였고, 1997년에는 무려 1,457만 2,000 달러의 수산물을 반입하였다(전체의 7.5%). 이렇게 연도별로 반입량이 크게 등락하고 있는 것은 핵문제 등 정치적인 여건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997년에 반입한 북한 수산물의 품목별 실적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동년도에 총 28 개의 품목이 반입되었는데, 그 가운데 문어가 가장 많아 628만 1,000 달러(43.1%)를 차지했고, 그 다음 복어 206만

〈표 5〉 1997년 북한 수산물 품목별 반입 실적

| (단위: M/T, 천 달러, %) | | | |
|--------------------|---------|-------|--------|
| 품목 | 수량 | 금액 | 금액 구성비 |
| 문어 | 2,366 | 6,281 | 43.1 |
| 복어 | 328 | 2,064 | 14.2 |
| 생대합 | 1,578 | 1,527 | 10.5 |
| 명태 | 2,583 | 1,120 | 7.7 |
| 우렁이 | 143 | 1,015 | 7.0 |
| 기타 | 1,106.5 | 2,546 | 17.6 |

자료: 통일부(1998), 「남북 교역 통계 자료(1989~97)」.

4,000 달러(14.2%), 생대합 152만 7,000 달러(10.5%), 명태 112만 달러(7.7%), 우렁이 101만 5,000 달러(7.0%)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5 개 품목의 반입 금액이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수산물을 북한에 반출하기도 했는데 1997년 경우 전체 금액이 26만 달러에 불과했다. 품목별로는 우렁이가 10만 3,000 달러(3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전복 8만 1,000 달러(31.1%), 가자미 2만 1,000 달러(8.1%) 등의 순서를 보였다.

위탁 가공 교역

남북 어업 협력의 두번째 형태는 위탁 가공 교역이다. 이것은 수직적 분업 형태의 산업 협력 방안으로서 우리가 원료를 제공하고 북한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임가공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저렴한 생산 비용의 이점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우수성 등으로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 북한에서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형태의 남북 교역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데, 반입의 경우 1997년에 전품목에 걸쳐 4,289만 4,000 달러로서 이 가운데 농림수산물은 전혀 없었고, 반출의 경우 총반출 금액 3,617만 5,000 달러가

운데 농림수산물이 42만 달러(1.2%)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 투자

남북 어업 협력의 세번째 형태는 남북이 서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북한 전체로는 1992~96년간 외국인이 제작 및 가공업에 119만 2,000 달러, 봉사 부문에 3,613만 4,000 달러 등 총 3,732만 6,000 달러를 투자하였다. 제작 및 가공 부문 가운데는 수산물 가공이 60만 1,000 달러로서 가장 많고(50.4%), 그 다음이 목재·건축재로서 36만 5,000 달러(30.6%)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남한 업체가 대북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우선 정부로부터 남북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다시 남북 협력 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의 형태는 다시 합작 사업과 합영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합작 사업은 북한측과 외국(남한)이 공동 투자하되 경영은 북한이 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 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것으로, 공동 투자 - 공동 경영 - 투자 지분에 따라 이윤 분배하는 합영 사업과 구분이 된다.

1998년 8월 현재 협력 사업자 승인만 받은 업체는 24 개소로서, 이 가운데 수산업 관련 업체는 파라우수산 1 개이다. 파라우수산은 수산물 가공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고

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북측 상대는 조선은파산무역상사이다. 투자 지역은 원산·해주이고 1997년 8월 1일에 협력 사업자로서 승인받은 후 현재 협력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1998년 8월 현재 남북 협력 사업 승인 업체는 (주)대우, (주)태창, 한국전력 등 12개 업체이며, 이 가운데 수산 관련 업체는 미홍식품과 태영수산(LG상사와 합작)으로서 업체로는 3개이나 사업은 2개이다. 미홍식품은 수산물 채취·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평양에 '철홍합영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투자 규모는 15만 달러이며 투자 방식은 합작이다. 북측 상대는 '조선철산주식회사'이고 투자 지역은 함흥·원산·남포이며 협력 사업자 승인은 1997년 5월에, 협력 사업 승인은 1998년 3월에 받았다.

태영수산과 LG상사는 가리비 양식을 위해 200만 달러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투자 방식은 합영 사업이다. 북한측 상대는 '광명

성총회사'이고 투자 지역은 원산 또는 나진·선봉지역이며 협력 사업자 승인은 1997년 10월에, 협력 사업 승인은 1998년 8월에 받았다.

남북한 어업 협력 방안

어업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

남북한 어업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하여 남북한간 어업 협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금후 이를 확대·심화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제 정책 기조는 자립적 민족주의로서, 이로써는 경제 발전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80년대 들어 무역 확대 및 다양화를 지향하게 되었고,

〈표 6〉 대북 직접 투자 업체 및 사업 개요

| 승인 업체 | | 사업 내용 | 투자 규모 | 투자 방식 | 북측 상대 | 투자 지역 | 승인일 |
|--------|------------|--------------|---------|-------|-----------|--------------|------------------------------|
| 사업자 승인 | 파라우수산 | 수산물 생산·가공 | 300만 달러 | - | 조선은파산무역회사 | 원산·해주 | 사업자(1997. 8) |
| 사업 승인 | 미홍식품 | 수산물 생산·가공·판매 | 15만 달러 | 합작 | 조선철산주식회사 | 함흥·원산·남포 | 사업자(1997. 5) 사업(1998. 3) |
| | 태영수산, LG상사 | 가리비 양식 | 200만 달러 | 합영 | 광명성총회사 | 원산(또는) 나진·선봉 | 사업자(1997. 10) 사업(1998. 8) |

자료: 한국무역협회(1998), 「주요 북한 경제 지표」.

특히 1984년 합영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 규모는 연도별로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① 자립적 민족 경제의 강화·발전을 위한 필요 한도 내에서 추진하였고, ② 무역 상대국의 우선 순위가 변하지 않은 채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었으며, ③ 수출입 상품 구조가 단순할 뿐 아니라 구상 무역에 너무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투자 유인 정책도 투자 환경 측면에서 ①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② 석유, 전력 등 기간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 ③ 합영 사업에 필요한 관련 제품 및 원재료 공급의 불안정, ④ 합영 사업 관련 법규의 미정비, ⑤ 통신·금융제도 미비와 주변 시장 협소, ⑥ 북한의 낮은 대외 신용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미비의 경우 원료의 확보나 생산 제품의 반출(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전력 공급의 불안정은 수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법상 경영 참여 배제, 판로 확보의 부담, 자의적인 법 해석과 분쟁 해결의 제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북한 어업 실태에 대한 자료 부족은 어업 협력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없이 어

업 협력을 추진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남북한 어업 협력 방안

앞에서 논의한 바를 기초로 할 때 남북한 어업 협력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북한의 해양 생태, 어업 자원 및 어업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어업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업 실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국의 실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있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어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진출 업체를 통해 개발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수산 업체가 외국(특히, 개도국) 수역에 입어하려고 할 때 연안국에서는 입어료는 물론 어항이나 가공 공장 등 자국 어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한 민족으로서 북한을 돕는다는 민족주의 차원을 떠나 우리 진출 업체의 사업 성공성을 높이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발굴,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어업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협상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나 남북한간 경제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개선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약 요인의 제거와 함께 남북한 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어업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북한 수산물의 반입에 있어서는 간접 교역보다는 직접 교역 방식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와 같이 북한 어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3국을 통한 간접 교역 방식이 불확실성 완화라는 점에서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중개상이 많은 이익을 획득하는 형태는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 수집 능력이 있는 종합상사 등과 무역업체가 제휴하여 북한 수산물을 반입하는 형태로 추진하되, 통일부는 물론 무역협회나 무역진흥공사 등 공공 기관에서도 북한 어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 이를 업체에 널리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북한 해역에 입어하든가 남한과 북한이 상대 해역에 상호 입어하는 방

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은 연근해어장에 있어 어업 자원이 고갈 상태에 있어, 어선, 어업 기술 및 연료 부족 등으로 원활하게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해역에 입어하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 북한과 일본 사이에 시행되고 있는데, 1977년 최초로 체결된 이래 매 2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조일어업민간잠정합의'에 의해 일본 어선이 북한 해역에 입어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태의 어업 협력을 위해서는 남한이 북한에 입어료를 지불해야 할 것인데, 외화가 부족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를 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자력으로 그들의 어장을 개발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현금대신 어선, 유류 및 어업 기술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선 등을 입어료대신 지불하는 문제는 현재 남한에서 매년 상당수의 어선을 구조 조정 차원에서 감축하고 있으므로 어선 해체 비용의 절감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감축 대상 어선이 비교적 노후 어선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어선 등을 제공하는 외에 어선수리소 시설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며, 기타 어업 기술 제공에 있어서도 북한 인력을 초청하여 훈련하든가 남한의 기술자가 북한에 가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남한과 북한이 상대 해역에 상호 입

어하는 방안은 북한으로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고, 특히 구소련(러시아)과 북한간 선택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한 해역에 입어하여 어획할 어류의 양이 많지 않고 기술이나 자본 등이 부족함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 어선원의 남한 어선 승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한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며 따라 대표적인 3D 업종으로서 어업 부문에 필요 인력을 적기에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리하여 중국 교포를 비롯하여 많은 외국 어선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 관습이 유사하며 노동의 질이 높은 북한 어선원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최근 IMF와 한일 어업 협상 타결 등으로 인해 선원 구인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이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북한 어선원의 남한 어선에 승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공동 어업 관리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어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한 쪽의 어업 행위가 상대의 어업 자원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양자가 공동으로 어업 자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업 자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

라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어업 관리 방식을 선택·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특정 어종에 대한 금어기, 금어구 등을 설정하여 양자가 모두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어업허가제도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가공업이나 수산 양식업 등 분야에 대해 남한의 대북한 직접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에는 조총련계 업체가 중심이 되어 수산물 가공이나 양식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북한의 양호한 입지 여건이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및 자본이 결합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클 것이다. 대상 업종으로는 남한의 수요가 큰 품목이나 일본 등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부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 어업에 대한 정보나 기반 시설 등 투자 환경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불리한 여건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맺음말

남북한 경제 협력은 정치적인 여건 변화로 부침을 계속해왔고, 북한의 투자 환경 열악으로 단기간에 큰 폭의 확대는 기대하기

힘드나 이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대북 직접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세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경제 협력의 강화이다. 특히, 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우리 수산물과 동일하고 거리 상의 이점 등을 감안할 때 외국과의 협력에 앞서 북한과의 협력 확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남북한간 어업 협력 확대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러한 제약 요인을 제거 내지 완화하는 데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업계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상호 호혜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수·정형찬(1993), “남북한 공동 어업 정책의 과제”, 「수산경영론집」, 제43호.
- 김영호(1995),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혁의 전망”, 「경제학연구」, 제43집, 제1호.
- 김운근·서승진·김정봉(1994),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개황」, 북한농업시리즈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최세균·김형모(1994), 「남북한 농업 부문 교역 및 협력 방안 연구」, 농경연 연구보고 R309.
- 안석교(1995), “남북한 경제 교류의 과제”, 「경제학연구」, 제43집, 제1호.
- 전홍택·조동호(1992), 「남북한 투자 협력의 정책 과제」,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 제2호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
- 통계청(1997),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 통일부(1998), 「남북 교역 통계 자료(1989~97)」.
- (1995), 「남북 경제 협력 추진 절차」.
- 한국무역협회(1998), 「주요 북한 경제 지표」.